

4월 20일 장애인의 날

# 장애인 차별 표현 바로잡기

한림대학교 인권세포터즈 4기



우리가 매일 쓰는 말,  
혹시 누군가를 기우고  
있지는 않나요?

차별 표현이 반복될수록  
장애인은 '다름'이 아닌 '결함'으로 인식되고  
그 인식은 차별과 배제로 이어집니다.

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가  
일상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장애인 차별  
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시다!



# 범어리

말을 못하는 것을 비하하는 표현

올바른 표현 :

# 언어장애인





# 정신병자



정신질환을 범죄 및 위험과  
연결짓는 낙인 표현

올바른 표현 :

# 정신질환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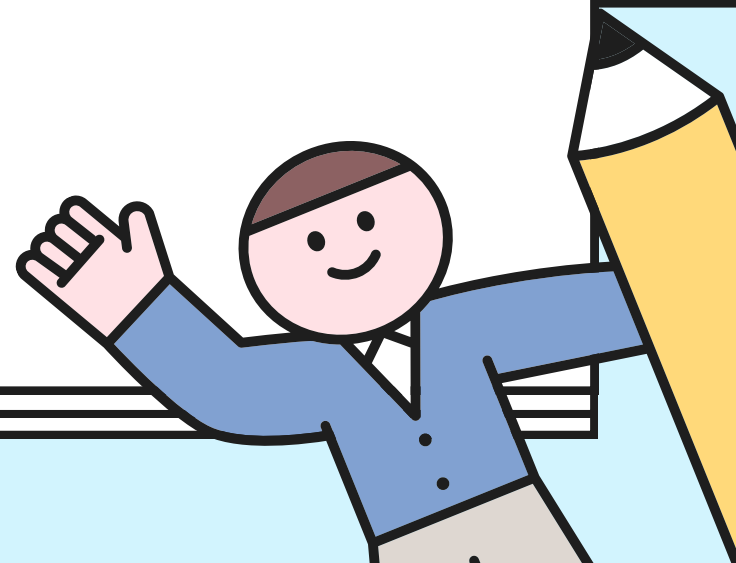


# 저능아

지적 능력을 모욕적으로 표현

음반은 표현 :

# 지적장애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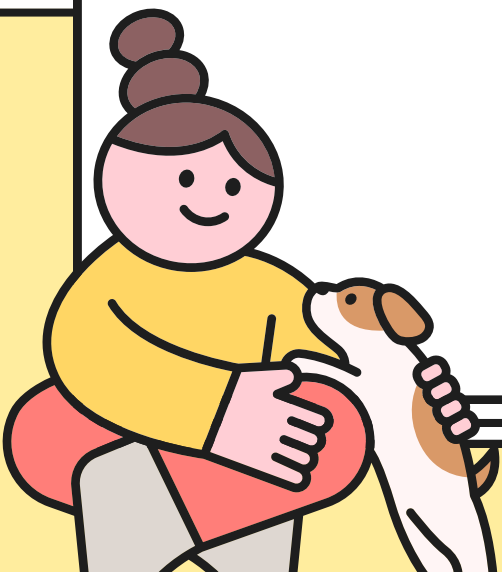


# 절름발이

다리를 거는 모습을  
조용하는 누앙스

올바른 표현 :

# 지체장애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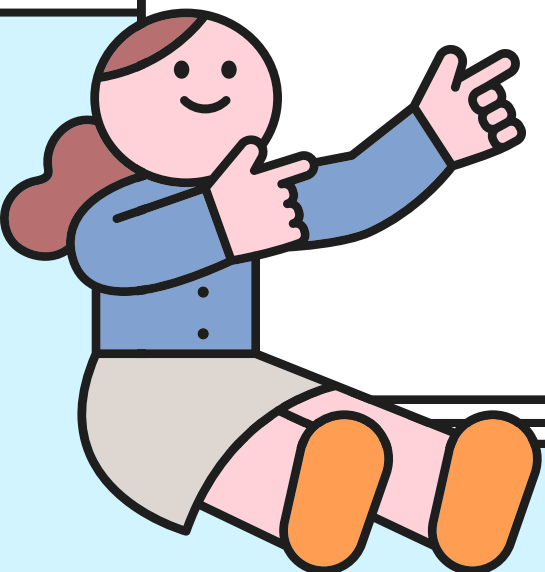


# 몸구자

신체적 경험을 강조하는  
부쟁객 표현

응바은 표현 :

**장애인,  
기체장애인**





- 차별 표현을 들었을 때,  
옳은 표현으로 수정해주기

- 습관적으로 쓰는 말,  
한 번 더 생각해보기

- 언어의 파급력  
항상 고려하기

이것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 
시작하는 인권 감수성입니다.

한림대학교 인권새포터즈 4기

출처 및 참고자료

: 국가인권위원회 혐오 표현 판단기준에 대한 토론회 자료

: KBS 뉴스

<https://news.kbs.co.kr/news/pc/view/view.do?ncd=5448172>

: 국립국어원

: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'장애인 정책 리포트'

